

## 한국고용정보원, 초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별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 공유 및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 모색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은 11월 28일(목) 13시부터 서울 전경련회관 파인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

- 일시 장소 : 2024. 11. 28.(목), 13:00~17:00, 서울 전경련회관 3층 파인홀
- 주요 내용 :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 현황, 한국의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고령자 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회의원, 강순희 전(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성희 전(前) 고용노동부 차관, 국제노동기구(ILO),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향후 노동 시장을 전망하고 열띤 토의를 펼친다.

이번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조 강연자로 나선 도로시 슈미트(Dorothea Schmidt)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은 주요국의 고령화 대응 현황과 국제적 비교를 통해 고령사회 노동시장의 미래를 조망한다.

이어 두 번째 기조 강연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은 한국의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정책'을 주제로 각국 정책을 공유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을, 영국 워릭대학교 필립 테일러(Philip Taylor) 교수는 고령화된 노동력을 포용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독일연방

고용공단 발베 울리히(Walwe Ulrich) 박사는 독일의 고령자 노동력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정책 및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고령자 취업현황과 전달체계'를 주제로 일본고용노동정책 연구기구 오학수 박사가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연금 수급 연령 조정에 따른 고용 연장 방안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신철 교수가 한국의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취업 지원의 도전 과제를, 한국고용정보원 강민정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참여 연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신종각 부원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고령자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가 한자리에 모여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고령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일하면서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자발적 근로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1.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 개요
- 2. 주요 발표 내용 소개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대외협력팀	책임자	팀 장	윤지영 (043-870-8760)
		담당자	차 장	임미연 (043-870-8750)





□ 목적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적 정책과 사례를 공유
- 한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11. 28.(목), 13:00~17:00, 서울 전경련회관 파인홀
- 참석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ILO 및 국제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
- 주요내용 : 기조강연, 고령자 고용정책 및 향후 노동시장 전망 등

□ 세부일정

구분	내용
접수 (13:00~)	접수
개회식 (13:30~)	개회사 (한국고용정보원장)
	환영사 (고용노동부 장관) * 영상 축사
	축사 (김형동 국회의원)
기조강연 (13:45~)	Keynote Address #1 주요국 고령화 대응 국제 비교(ILO 고용국 Branch Chief Ms.Dorothea Schmidt) Keynote Address #2 - 한국의 고령화와 고령자 노동시장(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부원장)
세션1. 고령자의 계속 고용 정책 (14:15~)	Moderator -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Presentations 1. 독일의 고령 노동자: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인적 자원인가? (독일연방고용공단 Walwe Ulrich 부원장) 2. 고령화된 노동력을 위한 '공동선' 관점(WARWICK 대학교 Philip Taylor 교수) 3. 한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정책(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 Discussion 1. 최기성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2. 이승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세션2. 고령자의 취업현황과 전달체계 (15:40~)	Moderator - 이성희 전 고용노동부 차관 Presentations 1. 일본의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일본고용노동정책기구 오학수 박사) 2. 중 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신철 교수) 3. 2차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기를 희망하는 이들 (한국고용정보원 강민정 부연구위원) Discussion 1.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2. 홍제희 팀장(노사발전재단)

**<1> 독일 연방고용청 발베이 울리히 박사, <독일의 고령 노동자: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인적 자원인가?>**

- 독일의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 논의
  - 은퇴 연령 연장, 고용 유지 장려금, 직업 훈련 지원 등 정책적 접근법 소개
  -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개선과 건강·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적 접근법 강조
  - 개인, 직업의 질, 제도적 준비를 통한 노동 시장 내 고령 근로자의 역할 확대 방안 제안

**<2> 영국 워릭대학교 필립 테일러 교수, <고령화된 노동력을 위한 '공동선' 관점>**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복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 생애 연장 필요성 강조
  - 연령 차별 철폐와 연령 포용적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법적 조치의 중요성
  -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안정성을 위한 '공동선'(common good) 기반의 인적자원관리(HRM) 전략 제안
  - SDGs 목표와 연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 모델 및 기업의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 소개

**<3> 일본 고용노동정책기구 오학수 박사, <일본의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

- 일본의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 발전과 고용 안정화 조치 발표
  - 정년 연장 및 폐지,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등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변화 소개
  - 70세까지 고용 보장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대응 방안 논의
  - 연령 차별 해소와 임금 불평등 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 방안 제안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장신철 교수,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중·장년층을 위한 한국 고용서비스 체계 및 재취업 지원 전략 발표
  -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직무 전환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 고령층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적 과제 논의
  - 지역 간 고용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와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제안

**<5> 한국고용정보원 강민정 부연구위원, <한국 2차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기를 희망하는 이들>**

-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 및 노동생애 연장을 위한 정책 과제 발표
  -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 지원 방안 논의
  - 직업훈련과 재취업 서비스를 통한 고용 안정성 제고 및 노동력 활용 극대화 방안 제시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및 고용 지원 체계 구축 강화